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 개발모색*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 간 통합지수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지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존하는 지역통합지수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의 통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비경제학적인 측면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지역통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지역통합지수를 명시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통합과는 다른 성격의 한중일 간 통합의 개념을 유럽연합 통합지수 연구의 신기능주의와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개념에 가깝게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제도, 관계, 수렴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에 맞는 방법론을 설정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통합지수, 동아시아 통합지수, 한중일 통합지수,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

I.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개념

1. 이론적 논의

지역 내 통합(regional integr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기능주의의 경우는 냉전을 거쳐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가 세계적 흐름이 된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론이다. 신기능주의는 일종의 공동체 개념으로 그 근본 작동기제는 ‘홀러넘침(spillov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예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24523). 이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0448A-2017004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를 들어, 화폐통합이나 FTA)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통합의 정도가 깊어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넘쳐(spillover)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에 관련한 연구에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Haas, 1956; Balassa, 1961; Rosamond, 2000; Schirm, 2002; Söderbaum and Timothy, 2003; Hettne, 2005).

아시아의 경우 국민국가 건설이 최상의 목표이던 20세기 중후반을 거쳐 1980년대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상에 더해 21세기 글로벌화(global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간 경계를 초월(trans-national)한 지역통합논의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 금융 위기와 같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가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타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경제 협력, 지역 통합화 논의를 촉진하였다. 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 논의는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아시아 단위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Dieter, 2007; Francois eds., 2009; Park eds., 2011; Masahisa eds., 2011; Pomfret, 2010). 다만, 동아시아에서의 통합논의는 대부분 활발한 경제적 교류양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해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통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통합논의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는 그 통합의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 및 지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경제적 통합을 거쳐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Letki, 2008; Koff, 2009; Vergolini, 2011; Moore, 2013). 그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경우도 지역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 및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¹

¹ 국가 간 혹은 지역 내 통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따른 통합의 형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실질적 지수의 도출과 그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 둠을 밝힌다. 이에 대해 지적해 줌과 동시에 관련 연구들을 추천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현존하는 지역통합지수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의 통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비경제학적인 측면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지역통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지역통합지수를 명시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Naehar, 2015; Sperlich and Sperlich, 2012; te Velde, 2005).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 간 사회문화 통합지수의 도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개념의 특징

한중일 삼국 간 사회문화 분야 통합은 다른 지역 통합개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통합개념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통합지수를 연구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 1989-2007』(김병연 외, 2009)에 따르면, 남북한 통합은 특수 관계로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제도적 통일뿐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assimilation)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이다.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항목 역시 의식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주로 제도적/관계적 통합을 지수로 책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한 수렴지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남북한 간의 통합은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 아래 독립된 공동체로 분리된 채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통일'을 하여 동일해진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는 배타적 경계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전통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공동체 내부의 공동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이 개념을 연합의 통합에 적용하여 연합 내 국가 간 사회문화적 통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매개로 각 공동체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 공통의 인식/의식 역시 비슷해져 갈 것이라는 의미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기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의 통합은 남북한 통합과는 목표와 성격이 다르고,

유럽연합보다는 느슨한 통합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한 통합과 같은 의도적 통합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도적 통합보다는 관계적·수렴적 통합항목에 집중해야 한다. 지수도출을 위한 배점 역시 제도보다는 관계·수렴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통합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사회문화적 통합논의처럼 동아시아 삼국 간 사회문화적 통합은 경제적·사회문화적 실질적 교류가 깊어지면서 각 세 국가 간에 비의도적인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에 따라 배점에서 관계보다는 수렴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도적·관계적 통합항목이 실질적 교류양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반면, 수렴항목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 교류들이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심화되는 과정 등에 걸쳐 비의도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사회문화적 지수가 통합으로 수렴하고 있다는(혹은 수렴하고 있지 않다는)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항목 및 배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II.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 구성요소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의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²

총점 - 250

제도적 통합(30) - 법제도(사증면제 여부, 10)

- 공동회의(실질적 제도화, 20)

² 본 연구에서 통합지수 항목과 배점의 설정은 각각 제도적 통합 30, 관계적 통합 100, 수렴 120으로 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것처럼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특성상 제도적 영향보다는 관계적 영향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그보다도 수렴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분야 하위항목의 배점은 최대한 기계적으로 분배하였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제도적 통합의 경우 법제도보다 고위급 차원의 공동회의의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고, 관계적 통합에 포함된 실무급 공동회의는 실제적인 교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 관계적 통합(100) - 공동회의(단순교류, 10)
 - 인적왕래(30)
 - 비행편수(30)
 - 문화콘텐츠 판권 구입/판매(30)

- 수렴(120) - 언론의 자유도(30)
 - 사회참여 및 삶의 질(30) - 노동쟁의(15)
 - 인간개발지수(15)
 - 문화인프라(30) - 공공도서관(10)
 - 공연장(10)
 - 박물관(10)
 - 교육인프라(30) - 영유아 교육기관(10)
 - 초중고등 교육기관(10)
 - 대학교 이상(10)

각 항목별 변인설정관련 설명과 지수 도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기술하

표 1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 단계별 분류³

단계	점수	내용
0	10점 이하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	11~20점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2	21~40점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있고, 그 비중이 높음
3	41~60점	사회적·문화적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됨
4	61~80점	3단계 + 사회적·문화적 교류에 제도적 제한이 거의 없음
5	81~100점	4단계 + 정기적인 교류, 공동협의기구 구성
6	101~130점	5단계 + 공동협의기구의 상시화
7	131~160점	6단계 + 주요대회 공동개최, 사회적·문화적 교류 차원에서의 의식적 자유화 진행
8	161~190점	7단계 + 회원국 간 사회문화정책의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짐
9	191~220점	8단계 + 사회문화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됨
10	221~250점	9단계 + 온전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³ 표 1의 0~10단계의 설정과 각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통합의 수준은 김병연 외, 2009를 참조하였고,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다른 정치, 경제 분야 통합지수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였다. 위의 변인들과 배점에 따라 도출된 한중일 사회문화적 통합지수의 합을 통해 그 단계를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단계 별 분류는 『남북통합지수』의 분류를 참고하고, 다른 경제 및 정치 분야 통합 분류와 함께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상술한 것처럼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은 남북 간 통합과 같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같은 완전한 개방 및 동일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10단계보다는 8단계가 최종목표일 것으로 판단된다.

III.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 구성방법

1. 제도적 통합(30)

제도적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법제도와 한중일 공식 공동회의를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법제도의 경우 실질적 교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비자 제도를 적용하였고, 배점 10을 부여하였다. 이때 주요 판단기준은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입국 시 사증면제일 경우 만점인 10점, 가능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실질적으로 2006년 이후 한-일 간에는 사증면제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 한-중, 중-일 간에는 여전히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0점이다. 그리하여 2006년 이전에는 전체 0점이고, 그 이후에는 세 가지 변인(한-일, 한-중, 중-일)의 합의 평균을 구하여 지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공동회의의 경우 한중일 삼국 간 공동회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지수를 도출하였고, 총 배점은 20점이다. 특히 사회문화 관련 각국 정상 혹은 장관급 회의를 기준으로 실질적 제도화(선언문 채택, 공식적 회의 등)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두었다.

- 급별 가중치: 국가정상 ×4/ 장관 ×3
- 사회문화 관련 선언 및 선언문 채택 등의 제도적 조치가 있을 경우 ×1.5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점으로는 사회문화 분야 각국 장관 및 정상외의 만남이 가장 잦다고 판단되는 〈European Council Meeting〉의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상의 경우 6회, 사회문화 분야 관련 장관급 회의는 24회 이루어졌다. 그에 따른 기준 점수는 96점이다. 이를 기준으로 도출한 사회문화 분야 제도적 통합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문화 분야 제도적 통합지수

연도	법제도 (10)	공동회의(20)				지수 합계
		국가정상	장관	가중치 총점	상대지수	
2016	3.3	0	3	13.5	2.8	6.1
2015	3.3	1	3	8.5	1.7	5
2014	3.3	0	1	4.5	0.9	4.2
2013	3.3	0	1	4.5	0.9	4.2
2012	3.3	1	1	8.5	1.7	5
2011	3.3	2	2	17	3.5	6.8
2010	3.3	2	1	12.5	2.6	5.9
2009	3.3	2	2	17	3.5	6.8
2008	3.3	1	3	17.5	3.6	6.9
2007	3.3	2	3	21.5	4.4	7.7
2006	3.3	0	1	4.5	0.9	4.2
2005	0	0	1	4.5	0.9	0.9
2004	0	1	0	4	0.8	0.8
2003	0	1	0	4	0.8	0.8
2002	0	1	0	4	0.8	0.8
2001	0	1	0	4	0.8	0.8
2000	0	1	0	4	0.8	0.8
1999	0	1	0	4	0.8	0.8

2. 관계적 통합(100)

1) 공동회의(단순교류)

사회문화 분야 관계적 통합지수의 공동회의 항목은 실질적 제도화보다는 단순교류의 측면에서 집중하였고, 공동선언문 채택이나 정상급, 장관급 회담과 같은 영향력은 없는 데다 사회문화 분야의 실질적 관계적 교류는 정부 관료 간의 교류보다는 민간분야의 교류가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판단 아래 배점을 10점으로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지수도출을 위한 가중치와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급별 가중치: 고위급 및 국장급 ×2/실무급 ×1.5/기타 ×1
- 기준점: European Council 실무급 회의(2017년 기준)
실무급 및 기타 회의: 199회
총 점수: 199

지수도출을 위한 기준점 역시 유럽연합의 자료를 참고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지수는 표 3과 같다.

2) 인적 왕래

인적 왕래는 한중일 삼국 간 상호 실질적 인구의 이동을 토대로 교류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항목이다. 그 기준점은 『남북통합지수』 연구의 경우 남북통합인구의 10%인 7백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지만, 한중일 삼국의 인적 왕래는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체 인구(16억)의 5%인 8천만 명을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8천만 명을 기준으로 여섯 변인(한-일, 일-한, 중-일, 일-중, 한-중, 중-한)의 합을 나누어 만점 점수 30점을 곱한 값을 수렴지수로 도출하였다(표 4).

3) 비행편수

관계적 실질 교류의 또 다른 측면으로 한중일 삼국 간 비행편수를 하나의 항

표 3 공동회의 지수(10)

연도	고위급 및 국장급	실무급	기타	가중치 총합	상대지수
2016	2	5	10	21.5	1
2015	0	7	8	18.5	0.9
2014	1	4	8	16	0.8
2013	1	5	7	16.5	0.8
2012	1	6	10	21	1
2011	2	7	5	18.5	0.9
2010	2	8	7	23	1.1
2009	3	7	6	21.5	1
2008	3	5	6	19.5	0.9
2007	3	6	7	22	1.1
2006	3	2	7	13	0.6
2005	2	1	5	12.5	0.6
2004	1	0	4	6	0.3
2003	1	0	2	4	0.2
2002	1	0	3	5	0.2
2001	0	0	1	1	0
2000	0	0	1	1	0
1999	0	0	1	1	0

목으로 책정하였다. 그 기준점 역시 통합이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유럽 연합 내 전체 비행편수(2016년)인 478만 편(유럽 전체 비행편수 약 1,010만 편에서 유럽 내 비행편수 비율 47%를 적용)을 기준점으로 삼아 위의 인적왕래의 방법으로 지수를 도출하였다(표 5).

4) 문화 콘텐츠 판매

인구이동이나 비행편수와 같은 실질적 인적이동이 아닌 문화 분야의 무형자산의 이동을 보여 주는 항목으로 한중일 삼국 간 문화 콘텐츠 판매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점은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화콘텐츠가 거래되는 구역인 미국-영국(US-UK Media & Entertainment) 간 콘텐츠 판매액인 2,200억

표 4 한중일 인적 왕래(30, 단위: 명)

연도	한일	일한	중일	일중	한중	중한	합계	상대지수
2016	5,351,093	2,321,842	7,019,157	2,590,000	4,775,000	8,919,901	30,976,993	11.6
2015	4,252,389	1,859,190	6,053,847	2,498,000	4,444,000	6,678,846	25,786,272	9.6
2014	3,016,112	2,300,161	3,486,315	2,718,000	4,182,000	6,834,850	22,537,438	8.4
2013	2,723,084	2,715,451	2,362,866	2,878,000	3,969,000	4,314,530	18,962,931	7.1
2012	1,621,903	3,497,525	2,107,645	3,518,200	4,069,900	3,083,140	17,898,313	6.7
2011	1,919,876	3,270,290	1,695,872	3,658,200	4,185,400	2,317,980	17,047,618	6.3
2010	2,686,867	3,004,066	2,166,289	3,731,200	4,076,400	1,944,970	17,609,792	6.6
2009	1,835,377	3,032,376	1,676,038	3,317,500	3,197,500	1,419,223	14,478,014	5.4
2008	2,625,377	2,358,333	1,747,283	3,446,100	3,960,400	1,166,122	15,303,615	5.7
2007	2,845,566	2,215,611	1,550,068	3,977,500	4,777,100	1,051,732	16,417,577	6.1
2006	2,370,163	2,319,874	1,302,154	3,745,900	3,924,000	914,759	14,576,850	5.4
2005	2,008,418	2,421,406	1,033,147	3,390,000	3,545,300	744,015	13,142,286	4.9
2004	1,774,872	2,426,837	970,299	3,334,300	2,844,900	620,667	11,971,875	4.4
2003	1,621,903	1,790,933	703,758	2,254,800	1,945,500	491,450	8,808,344	3.3
2002	1,472,096	2,307,095	666,867	2,925,600	2,124,300	532,747	10,028,705	3.7
2001	1,342,987	-	520,869	2,385,700	1,678,800	-	5,928,356	2.2
2000	1,286,583	2,443,453	436,058	2,201,500	1,344,700	470,295	8,182,589	3.0
1999	1,160,034	2,193,933	369,512	1,855,200	992,000	560,344	7,131,023	2.6
1998	960,556	1,947,784	353,051	1,572,100	632,800	316,016	5,782,307	2.1
1997	1,236,597	1,667,501	314,435	1,581,700	781,100	175,185	5,756,518	2.1

달러(USD)를 기준으로 삼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수를 도출하였다. 다만 본 자료는 중국과 일본 간 문화콘텐츠 판매를 보여 주는 통계자료를 구하지 못해 이를 제외한 지수를 도출하였다.

3. 수렴(120)

사회문화 분야 수렴지수의 경우 한중일 간 실질적 교류 및 영향을 중시하는 기존 제도 및 관계적 통합지수와는 달리 각 국가의 추세가 어느 정도로 '비슷하

표 5 한중일 비행편수(30)

연도	한일	일한	중일	일중	한중	중한	합계	상대지수
2016	25,550	25,763	66,428	67,759	66,447	64,977	316,924	1.9
2015	26,573	26,594	64,699	64,661	62,671	62,705	307,903	1.9
2014	27,688	27,751	48,160	48,086	58,002	58,225	267,912	1.6
2013	28,931	29,065	41,941	41,879	49,161	49,199	240,176	1.5
2012	26,583	26,750	33,242	33,267	45,354	45,497	210,693	1.3
2011	18,724	19,640	33,792	34,847	33,536	32,675	173,214	1.0
2010	18,113	18,991	36,834	37,195	33,211	32,419	176,763	1.1
2009	26,438	26,968	46,813	47,227	39,916	39,368	226,730	1.4
2008	26,037	25,748	49,867	50,551	43,892	44,097	240,192	1.5
2007	24,728	24,368	48,999	49,253	46,913	46,855	241,116	1.5
2006	24,511	24,159	40,759	41,245	32,852	33,117	196,643	1.2
2005	22,991	22,174	39,214	39,228	26,475	26,551	176,633	1.1
2004	21,039	21,357	36,193	35,880	21,961	22,159	158,589	0.9
2003	19,867	17,971	28,166	27,732	18,089	17,606	129,431	0.8
2002	14,388	14,432	23,993	24,186	16,576	16,529	110,104	0.6
2001	18,726	18,669	14,610	14,336	9,005	8,833	84,179	0.5
2000	16,754	16,680	11,252	10,497	6,848	6,650	68,681	0.4
1999	15,708	15,221	11,483	10,557	6,029	5,733	64,731	0.4

표 6 한중일 문화 콘텐츠 판매(USD, 30)

연도	한일	일한	중일	일중	한중	중한	총합	상대지수
2017	1,655,975,000	214,086,000	-	-	3,873,216,000	199,323,000	5,942,600,000	8.1
2016	1,376,054,000	150,992,000	-	-	1,812,768,000	181,118,000	3,520,932,000	4.8
2015	1,398,492,000	166,878,000	-	-	1,450,707,000	177,463,000	3,193,540,000	4.3
2014	1,597,467,000	157,207,000	-	-	1,341,225,000	189,993,000	3,285,892,000	4.4
2013	1,455,837,000	131,970,000	-	-	1,305,799,000	168,697,000	3,062,303,000	4.1
2012	1,347,892,000	217,889,000	-	-	1,229,322,000	170,322,000	2,965,425,000	4
2011	1,247,982,000	258,252,000	-	-	1,118,909,000	178,172,000	2,803,315,000	3.8
2010	800,237,000	110,387,500	-	-	747,666,000	136,000,500	1,794,291,000	2.4
2009	661,318,000	106,352,000	-	-	579,685,000	132,210,600	1,479,565,600	2
2008	542,311,000	131,987,400	-	-	410,426,000	135,723,500	1,220,447,900	1.6
2007	492,181,000	111,134,300	-	-	351,993,000	138,460,700	1,093,769,000	1.4

표 7 한중일 언론자유도 수렴지수(30)

연도	1위	한국(상대지수)	중국(상대지수)	일본(상대지수)	수렴지수
2016	91.41 (30)	71.42 (23.4)	25.73 (8.4)	71.33 (23.4)	6.4
2015	92.48 (30)	73.45 (23.8)	26.45 (8.5)	73.05 (23.6)	5.7
2014	93.6 (30)	74.34 (23.8)	27.09 (8.6)	73.98 (23.7)	5.2
2013	93.62 (30)	75.52 (24.1)	26.93 (8.6)	74.29 (23.8)	5.4
2012	110 (30)	87.33 (23.8)	-36 (-9.8)	101 (27.5)	9.1
2011	-	-	-	-	-
2010	100 (30)	86.67 (26)	15.33 (4.5)	97.5 (29)	5.7
2009	100 (30)	84.33 (25.2)	15.5 (4.6)	96.75 (29)	5
2008	98 (30)	91 (27.8)	14.5 (4.4)	93.5 (28)	9.7
2007	98.5 (30)	87.88 (26.7)	11 (3.3)	88.25 (26.8)	5.2
2006	99.5 (30)	92.25 (27.8)	6 (1.8)	87.5 (26.38)	7.8
2005	99.5 (30)	92.5 (27.8)	17 (5.1)	92 (27.7)	14.6
2004	99.5 (30)	88.87 (26.7)	7.67 (2.3)	90 (27)	10.1
2003	99.5 (30)	90.83 (27.3)	8.75 (2.6)	92 (27.7)	-
2002	99.5 (30)	89.5 (26.9)	3 (0.9)	92.5 (27.8)	-

게 닦아간다는 개념'으로 각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에서 기존에 정확히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전체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한중일 간 상관계수(Correlation)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렴지수를 도출하였다.⁴

언론자유도(30점 배점)의 지수 도출 방법은 '국경 없는 기자회견'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는 0점을 만점으로 책정된 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상대지수를 내야 하는 관계로 해당 연도의 1위 지수를 100점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 그리고 각 상대지수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수렴지수를 도출하였다(표 7 참고).

⁴ 경제 분야에서는 상관계수가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100%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준상관계수(Quasi-Correlation)를 통한 수렴지수의 도출을 시도하였지만, 사회 문화 분야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각 항목의 상대지수를 내기 위한 기준점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지수를 도출하였다. 향후 계속된 연구를 통해 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8 사회참여 및 삶의 질 지수(30)

연도	노동쟁의(인구 10만 명당 횡수, 15)				인간개발지수(15)				수렴지수 합계
	한	중	일	수렴지수	한	중	일	수렴지수	
2016	2	60	0	3.3	0.9	0.748	0.907	14.8	18.1
2015	2	62	0	3	0.898	0.743	0.905	14.8	17.8
2014	2	55	0	6.6	0.896	0.738	0.903	14.8	21.4
2013	1	51	0.5	2.3	0.893	0.729	0.899	14.8	17.1
2012	2	49	0.6	2.3	0.89	0.722	0.895	14.7	17
2011	1	45	0.4	5	0.888	0.714	0.89	14.7	19.7
2010	1.7	46	0.7	2.3	0.884	0.706	0.885	14.7	17
2009	2	52	0.7	2.6	0.869	0.694	0.88	14.7	17.3
2008	2	53	0.4	5.3	0.874	0.685	0.881	14.8	20.1
2007	2	26	0.4	4	0.869	0.675	0.88	14.8	18.8
2006	2	24	0.3	3.6	0.862	0.661	0.877	14.8	18.4
2005	5.7	24	0.4	7.6	0.855	0.647	0.873	14.8	22.4
2004	9	20	0.4	2.3	0.847	0.635	0.869	14.8	17.1
2003	6	17	0.3	3	0.839	0.623	0.865	14.8	17.8
2002	6	14	0.6	5.6	0.832	0.611	0.862	14.8	20.4
2001	4.7	11	0.7	-	0.824	0.602	0.859	14.8	-
2000	5	10	0.9	-	0.817	0.594	0.855	14.8	-
1999	3.9	-	1.2	-	0.808	0.585	0.85	14.8	-

두 번째인 사회참여 및 삶의 질(30점 배점)의 경우 노동쟁의와 인간개발지수로 나뉘는데, 노동쟁의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한중일 삼국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사회참여활동이다. 다만, 한중일 간 인구의 격차로 인해 노동쟁의 횡수를 절대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인구 10만 명당 횡수로 상대화하여 데이터를 도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렴지수를 설정하였다. 삶의 질 지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인간개발지수는 매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발표되는 인간의 삶과 관련한 지표로 유엔 소속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문맹률, 학교등록률, 평균수명 등 현대인의 삶과 관련한 여러 지표를 조사하여 각국의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지수는 0과 1 사이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

표 9 문화인프라 지수(30)

연도	공공도서관 (10)				공연장 (10)				박물관 (10)				수렴 지수 합계
	한	중	일	수렴 지수	한	중	일	수렴 지수	한	중	일	수렴 지수	
2016	1,010	3,153	3,308	9.3	1,253	2,285	1,851	2.7	1,045	4,109	1,256	7.8	19.8
2015	978	3,139		9.3	1,220	2,143		2.3	982	3,852		8.1	19.7
2014	930	3,117		9.3	1,224	1,338		2.3	935	3,658		7.8	19.4
2013	865	3,112	3,274	9.2	1,101	1,344	1,866	2.4	930	3,473	1,262	8.7	20.3
2012	828	3,076		9.3	1,037	2,364		3.3	911	3,069		8.8	21.4
2011	786	2,957		9.6	960	1,956		2.5	840	2,650		8.5	20.6
2010	759	2,884	3,165	9.6	830	2,112	1,893	5.5	796	2,435	1,248	9	24.1
2009	703	2,850		9.7	772	465		5.6	761	2,252		8.4	23.7
2008	644	2,820		9.6	732	1,944		6.5	707	1,893		9.1	25.2
2007	600	2,799	2,979	9.5	662	2,070	1,885	7.9	-	1,722	1,196	9.1	26.5
2006	554	2,778		9.5	637	1,839		7.5	-	1,617		9.2	26.2
2005	506	2,762		9.2	-	1,866		6.5	-	1,581		8.9	24.6
2004	481	2,720	2,742	8.3	-	41	1,832	0.7	-	1,548	1,120	8.8	17.8
2003	459	2,709		8.6	-	35		0	-	1,515		8.5	17.1
2002	434	2,697		7.7	-	36		0	-	1,511		7.8	15.5
2001	410	2,696	2,592	-	-	39	1,751	-	-	1,461	1,045	-	-
2000	392	2,675		-	-	35		-	-	1,384		-	-
1999	373	2,669		-	-	36		-	-	1,363		-	-

으며, 0.900 전후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very high human development’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표 8 참고).

나머지 두 지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30점 배점)와 교육인프라(30점 배점)이다. 각각 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문화인프라), 영유아, 초중고, 대학 이상(교육인프라)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문화인프라의 다양한 기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설정한 것은 한중일 삼국의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설정한 측면이 크다(표 9, 표 10 참조).

표 10 교육인프라 지수(30)

연도	영유아 교육기관 (10)				초중고 교육기관 (10)				대학 이상 교육기관 (10)				상대 지수 합계
	한	중	일	지수	한	중	일	지수	한	중	일	지수	
2016	8,987	239,812	11,252	3.2	11,733	317,441	37,002	3.1	1,534	2,596	4,310	3.3	9.6
2015	8,930	223,683	11,674	3.3	11,693	330,163	37,347	3.1	1,536	2,560	4,335	3.3	9.7
2014	8,826	209,881	12,905	3.3	11,612	340,975	37,674	3.2	1,549	2,529	4,347	6.6	13.1
2013	8,678	198,553	13,043	3.3	11,570	353,159	38,020	3.2	1,540	2,491	4,365	3	9.5
2012	8,538	181,251	13,170	0	11,516	368,695	38,437	9.6	1,520	2,442	4,412	0	9.6
2011	8,424	166,750	13,299	0	11,472	383,374	38,766	9.6	1,516	2,409	4,440	0	9.6
2010	-	150,420	13,392	1.6	-	402,151	39,164	9.7	-	2,358	4,491	0	11.3
2009	-	138,209	13,516	3.1	-	429,209	39,528	9.6	-	2,305	4,534	0	12.7
2008	-	133,722	13,626	4	-	452,436	39,841	9.6	-	2,263	4,590	0	13.6
2007	-	129,086	13,724	4.7	-	477,450	40,140	9.6	-	1,908	4,631	0	14.3
2006	-	130,495	13,835	5.4	-	502,750	40,419	9.6	-	1,867	4,658	0	15
2005	-	124,402	13,949	6.5	-	530,183	40,719	9.6	-	1,792	4,657	0	16.1
2004	-	117,899	14,061	7.5	-	560,337	41,078	9.7	-	1,731	4,665	0	17.2
2003	-	116,390	14,174	8.2	-	593,220	41,329	9.8	-	1,552	4,668	0	18
2002	-	111,752	14,279	8.9	-	625,979	41,538	9.8	-	1,396	4,696	0	18.7
2001	-	111,706	14,375	8.9	-	661,470	41,725	9.9	-	1,225	4,725	0	18.8
2000	-	175,836	14,451	-	-	718,546	41,876	-	-	1,041	4,774	-	-
1999	-	181,136	14,527	-	-	747,873	41,961	-	-	1,071	4,773	-	-

IV.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 추이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한 한중일 삼국 간 사회문화 통합의 전체 종합 지수는 표 11과 같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4년 이후의 전체지수만을 도출했지만, 그 추세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은 위의 지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한 것이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전체 사회문화 통합지수의 경우 2004~2016년 사이의

표 11 사회문화 분야 전체 통합지수(250)

연도	제도적 통합(30)	관계적 통합(100)					수렴(120)					지수 합계 (250)
		공동 회의 (10)	인적 왕래 (30)	비행 편수 (30)	문화 콘텐츠 (30)	합계	언론자 유도 (30)	사회 참여 (30)	문화 인프라 (30)	교육 인프라 (30)	합계	
2016	6.1	1	11.6	1.9	4.8	19.3	6.4	18.1	19.8	9.6	53.9	79.3
2015	5	0.9	9.6	1.9	4.3	16.7	5.7	17.8	19.7	9.7	52.9	74.6
2014	4.2	0.8	8.4	1.6	4.4	15.2	5.2	21.4	19.4	13.1	59.1	78.5
2013	4.2	0.8	7.1	1.5	4.1	13.5	5.4	17.1	20.3	9.5	52.3	70
2012	5	1	6.7	1.3	4	13	9.1	17	21.4	9.6	57.1	75.1
2011	6.8	0.9	6.3	1	3.8	12		19.7	20.6	9.6	49.9	68.7
2010	5.9	1.1	6.6	1.1	2.4	11.2	5.7	17	24.1	11.3	58.1	75.2
2009	6.8	1	5.4	1.4	2	9.8	5	17.3	23.7	12.7	58.7	75.3
2008	6.9	0.9	5.7	1.5	1.6	9.7	9.7	20.1	25.2	13.6	68.6	85.2
2007	7.7	1.1	6.1	1.5	1.4	10.1	5.2	18.8	26.5	14.3	64.8	82.6
2006	4.2	0.6	5.4	1.2	-	7.2	7.8	18.4	26.2	15	67.4	78.8
2005	0.9	0.6	4.9	1.1	-	6.6	14.6	22.4	24.6	16.1	77.7	85.2
2004	0.8	0.3	4.4	0.9	-	5.6	10.1	17.1	17.8	17.2	62.2	68.6
2003	0.8	0.2	3.3	0.8	-	4.3	-	17.8	17.1	18	52.9	-
2002	0.8	0.2	3.7	0.6	-	4.5	-	20.4	15.5	18.7	54.6	-
2001	0.8	0	2.2	0.5	-	2.7	-	-	-	18.8	-	-
2000	0.8	0	3	0.4	-	3.4	-	-	-	-	-	-
1999	0.8	0	2.6	0.4	-	3	-	-	-	-	-	-
1998	-	-	2.1	-	-	-	-	-	-	-	-	-
1997	-	-	2.1	-	-	-	-	-	-	-	-	-

통합지수만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술한 ‘사회문화 통합단계’에서 연도에 따라 4단계와 5단계를 오가는 수준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까지 통합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추세였으나, 2008년과 2009년부터 급격히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지수가 80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2014년 78.5점, 2016년 79.3점을 기록하였는데, 2017년 이후 지수 변동 상황을 지켜볼 경우 유의미한 분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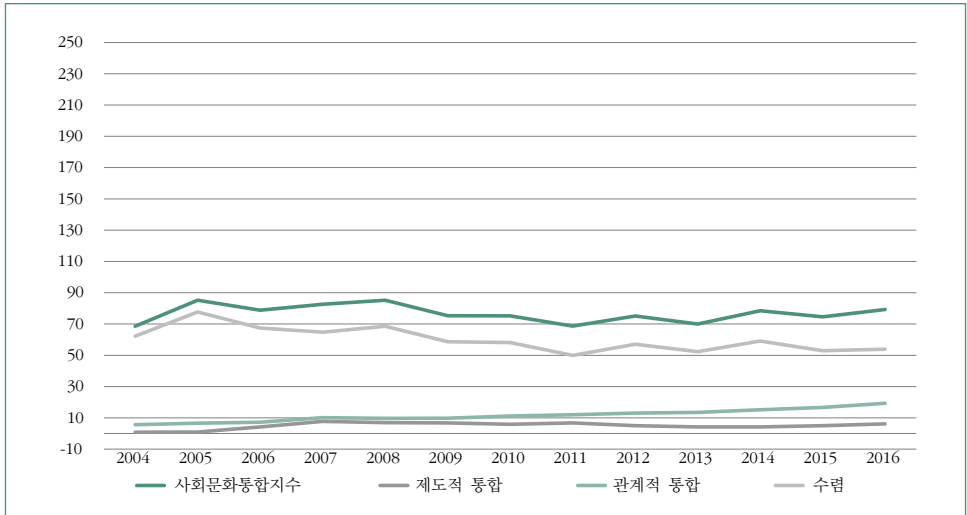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문화 통합지수 변화양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지수가 상승곡선을 타면서 2016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각 지수별로 살펴보면, 제도적 통합지수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관계적 통합지수는 2016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11의 전체지수를 보면 수렴지수의 경우 문화인프라를 제외하고, 언론자유도·사회참여·교육인프라 지수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지수는 전체 사회문화 지수와 변동경향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상승하는 관계적 통합지수의 영향으로 전체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인 데 반해, 수렴지수의 경우 하강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기는 언론자유도와 교육인프라의 하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교육인프라의 경우 출산율 저하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자유도의 하강은 나아지고 있는 중국에 반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7년 이후 언론자유도가 최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지수를 볼 경우 더욱 유의미한 지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계적 통합지수의 상승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의 통합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전망한다. 또한 2014년 이후 전체 통합지수의 증가 경향은 수렴적 지수가 아닌, 관계적 지수의 영향인데, 그중에서도 인적왕래의 지수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는 다른 지수의 경향과는 무관하게 한중일 삼국 간 인적왕래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의 또 다른 특징이다.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의 특징은 제도적 관계보다는 관계적, 수렴적 관계가 중요하고,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목의 특성상 의도적, 의식적 교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한 요소인 정치나 경제 분야와는 다른 사회문화 분야의 특징 때문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지수는 의도적 교류보다는 무의식적, 비의도적 교류가 핵심이다. 즉, 신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깊어지면, 그에 따라 그 영향이 흘러넘쳐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특징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 간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를 다양한 항목과 방법을 바탕으로 도출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의의에 관해 서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문화 분야는 그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항목으로 전체 사회문화 분야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분야 항목이 존재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항목을 선정한 기준은 그 중요성 못지않게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였다. 사회문화 분야의 데이터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각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계자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통계 자료적 특성에 따라 특정 항목의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화콘텐츠 분야인데, 이 분야는 한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백서를 발간하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관련한 통계자료가 없었고, 중국의 경우 금액이 아닌 건수로 책정하는 등 상이했다. 그에 따라 자료에 손실이 있었지

만, 그 중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대로 삽입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 통합지수 연구와는 달리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지수 연구는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이 추가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명확한 숫자를 도출해야 하는 지수 연구의 특성상 최대한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통합지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명백한 한계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정성적 항목을 설정하여 지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봄으로써 사회문화 분야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과 각 분야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여 실질적으로 도출해 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 분야뿐 아니라 다른 정치 및 경제 분야 통합지수와 함께 전체적으로 통합지수를 도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 간 통합지수의 도출을 통해 한-일, 한-중, 중-일 등 양국 간 통합의 정도 역시 동시에 도출할 수 있고, 더 확장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의 통합지수를 도출할 만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사회문화 분야 통합지수 연구의 부족한 점, 즉 데이터 손실, 방법론상의 논의 등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9년 11월 10일 | 심사일: 2019년 12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9일

참고문헌

-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2009.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계훈. 2008. “동북아시아 통합에 관한 연구: 통합지수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 Balassa, Bela A.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Homewood, Ill: R.D. Irwin.

- Dieter, Heribert. 2007. *The Evolution of Regionalism in Asia: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Oxon, New York: Routledge.
- Francois, Joseph, eds. 2009. *Pan-Asian Integration: Linking East and South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as, Ernst B. 1956. "Regionalism, Functionalism and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Politics* 8(2), 238-263.
- Hettne, Bjorn. 2005.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10(4), 543-571.
- Koff, Harlan, ed. 2009. *Social Cohesion in Europe and the Americas*. Brüssel: P.I.E.-Peter Lang.
- Letki, Natalia. 2008. "Does Diversity Erode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Rave in British Neighbourhoods." *Political Studies* 56(1), 99-126.
- Masahisa, Fujita, eds. 2011. *The Economics of East Asian Integration: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Regional Issues*. Cheltenham: Edward Elgar.
- Moore, Candice. 2013. *Regional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Perspectives from the Developing World*. Brüssel: P.I.E.-Peter Lang.
- Naeher, D. 2015. "An Empirical Estimation of Asia's Untapped Regional Integration Potential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sian Development Review* 32(2), 178-195.
- Park, Jehoon, eds. 2011. *Regionalism, Economic Integration and Security in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 Pomfret, Richard. 2010. *Regionalism in East Asia: Why Has It Flourished Since 2000 and How Far Will It Go?*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Rosamond, Ben. 2000.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Hampshire: Macmillan Press.
- Schirm, Stefan 2002.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Cambridge: Polity.
- Shin, Kwanho and Yunjong Wang. 2004.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6(2), 213-220.
- Söderbaum, Fredrik and Timothy M. Shaw, ed. 2003. *Theories of New Region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perlich, Y. and S. Sperlich. 2012. "Practical Tools for Monitoring Convergence,

-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mpare and Apply.”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4(1), 72-103.
- te Velde, D. W. 2005. *Regional Integration and Poverty*.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Vergolini, Loris. 2011. “Social cohesion in Europe: How Do the Different Dimensions of Inequality Affect Social Cohe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2(3), 197-214.
- Ye, Victor Yifan and Mia Mikic. 2016. “The Index of Asia-Pacific Regional Integration Effort.” *East Asia Economic Review* 20(2), 129-168.

Asian Development Bank(ADB) Annual Report

EU Cohesion reports and interim progress reports from 1996 onwards

PwC Global(<https://www.pwc.com/gx/en/industries/tmt/media.html>)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Data(World Bank)

데이터 출처

항목	세부항목	데이터 출처
제도적 통합	법제도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 出境入境管理法)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일본출입국관리관계법령(日本出入國管理關係法令)
	공동회의	한중일 협력사무국(http://www.kr.tcs-asia.org/) 한중일 협력사무국 아카이브(TCS Archives) European Council meeting(국가정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European_Council_meetings)
관계적 통합	공동회의	European Council meeting(장관/실무)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calendar/?dateFrom=2017%2f01%2f01&dateTo=2018%2f12%2f31&filters=2028&filters=2023&filters=2026&filters=2019&filters=2020&Page=3)
	인적왕래	일본출입국관계통계(日本出入國關聯統計): Exel 파일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Exel 파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관광산업(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旅遊業)
	비행편수	TCS Archives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ttps://www.eurocontrol.int/news/overview-2016-busiest-year-record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ir_transport_statistics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연도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US-UK Media & Entertainment Export and Import https://2016.export.gov/industry/mediaandentertainment/index.asp

항목	세부항목	데이터 출처
수렴	언론자유도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국경없는 기자회)
	사회참여	대한민국 통계청 일본통계국(日本統計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 國家統計局) & 각종 관련 연구 ILO Statistics https://www.ilo.org/ilostat/faces/wcnav_defaultSelection?_afLoop=491559711476660&_afWindowMode=0&_afWindowId=null#%40%40%3F_afWindowId%3Dnull%26_afLoop%3D491559711476660%26_afWindowMode%3D0%26_adf.ctrl-state%3Ddo7fmwehv_8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hdr.undp.org/en/data#) HDI Data(Excel File)
	문화인프라	대한민국 통계청 일본통계국(日本統計局) https://www.e-stat.go.jp/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 國家統計局) Federal Statistical Office 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EGMUS(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https://www.egmus.eu/ EBLIDA(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http://www.eblida.org/activities/kic/public-libraries-statistics.html STATISTA(number of cinemas in Europ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40090/cinema-sites-in-european-countries/
교육인프라	대한민국 통계청 일본통계국(日本統計局) https://www.e-stat.go.jp/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 國家統計局) EU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	

Abstract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Integration Index: Social-Cultural Areas for South Korea, Japan, and China

Jong Ho Kim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raw an integration index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social-cultural areas.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economic aspect using quantitative analysis.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limit of regional integration index research for the non-economic areas, such a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tries to find diverse methods of drawing an actual East Asian integration index of social-cultural areas. Especially, through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new functionalism and social cohesion on the integration index normally used in European integration research, this article uses concepts of institution, relations, and convergence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searches for a way to draw the East Asian version integration index.

Keywords |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Index, New Functionalism, Social Cohesion, Convergence Index